

광주 3년 못 버틴 카페 58.6%...전국 3위

폐업률 15.1%...5년 연속 창업·폐업률 전국 평균 웃돌아 '동리단길' 광주 동구 인구 대비 가계수 전국 9번째로 많아

KB경영연구소 '커피전문점 현황'

광주지역 커피전문점 폐업률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폐업한 가게 중 3년을 채 버티지 못한 비중은 절반이 넘었다.

'동리단길'로 불리는 동명동 카페거리가 있는 광주시 동구는 인구 대비 커피전문점이 전국 9번째로 많았다.

6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커피전문점 현황과 시장 여건'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전문점 폐업률은 광주 15.1%, 전남 11.8%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폐업률은 14.1%로 광주지역 폐업률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다.

광주지역 폐업률은 지난 2017년 14.5%에서 지난해 15.1%로 오름세다. 특히 지난해 폐업매장 현황을 보면 영

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문 닫은 가게가 절반을 넘었다. 2016년에서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영업기간 3년 미만 폐업 비중은 광주 58.6%로, 제주(62.8%)·세종(59.3%)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높은 폐업률에도 광주지역 커피전문점 창업률은 최근 5년 연속(2014-2018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광주지역 커피전문점 창업률은 25.4%로, 세종(31.5%)·경기(25.9%)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22%)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동명동 카페거리가 있는 광주시 동구는 인구 대비 커피전문점 수가 전국에서 9번째로 많았다. 인구 1000명당 커피전문점 수가 3.37개 있는 것으로 집계돼 높은 밀집도를 보였다.

■ 커피전문점 폐업률 (단위:%)



올해 7월 기준으로 커피전문점 수는 광주 1709개·전남 2175개로, 전국 7만여 개 커피전문점 수 대비 각각 2.4%, 3.1%의 비중을 나타냈다.

상위 10대 프랜차이즈 가맹점별로 보면 광주에는 '이디야커피'가 45개로 가장 많았고 '투썸플레이스'(32개), '엔제리너스'(31개)가 뒤를 이었다. 전남에서도 이디야커피(54개) 가맹점 수가 1위를 차지했고 요거프레스(50개)와 커피베이

(26개) 등 특정 브랜드가 많이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는 제외한 수치로, 광주에는 51개 전남은 17개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다.

커피 전문점의 전체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총매출은 2016년 7조1000억원에서 2017년 7조9000억원으로 10.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업체당 영업이익은 118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11.0% 줄었다. 이와 함께 전체 매장의 11.0%는 적자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4.8%)보다 높은 비율이다.

보고서를 펴낸 김태환 연구위원은 "커피 전문점은 브랜드보다 맛과 접근성, 가격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소형·비프랜차이즈 매장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라면서도 "매장간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같은 상권이라도 매장별 매출에 차이가 커 창업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4.15 (+1.51)	↑ 금리(국고채 3년) 1.53 (+0.01)
↓ 코스닥 669.68 (-2.50)	↓ 환율(USD) 1156.90 (-0.60)



광주국세청-전남우정청 대국민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원·왼쪽 세 번째)과 전남지방우정청은 6일 오전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납세자가 국세환급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우체국에 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해 접수해야 할 '계좌개설 신고서'를 전남지방우정청 소속 우체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해져 '계좌개설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국세환급금 수령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사·군 지역,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도시지역의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진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석원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행정기관을 이점으로 방문하는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광주 25·전남 7개 신청 참여 저조

한 업체당 최대 18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이하 강소기업 100)에 대한 광주·전남 참여는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신산업 및 전문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강소기업 100' 사업에 중소기업 1064개가 지원해 경쟁률 1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지역은 25개, 전남은 7개만 신청하면서 전체 응모 기업 대비 각각 2.3%, 0.7%에 불과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남은 세종(3곳)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관련 기업이 많이 분포한 경기 권역 중소기업이 426곳(40%)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85개·8%), 서울(80개·7.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 분야별로는 ▲기계·금속(245개) ▲전기·전자(216개) ▲반도체(169개) 기업들의 참여가 많았다.

매출액 규모별로는 ▲100억원 이하 46.4% ▲100억 초과 1000억 이하 38.6% ▲1000억 초과 1.8%로 '100억 초과 500억 이하 기업'(31.6%)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크고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왼쪽 7번째)은 지난 5일 롯데슈퍼 풍암점 1층 이전 지점에서 '풍암동지점 이전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풍암점 롯데슈퍼 1층으로 이전

고객 접근성·편의성 향상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5일 롯데슈퍼 풍암점 1층으로 이전한 풍암동지점에서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서대석 광주시 서구청장, 강기석 광주시 서구의회의장, 장치성 문장건설 회장, 박윤옥 서광주 정상아학원 이사장 등 주요 기관장과 지역 우량기업 CEO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이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기존에 4층에 위치했던 풍암동지점을 넓은 주차공간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마트 1층으로 이전함으로써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돼 고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올해 하반기 고

객님들께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광주·전남지역에 3개 점포를 신설하고, 위치상 고객 접근성이 다소 불편한 영업점 1곳과 2층 이상 영업점 2곳을 1층으로 이전했다"며 "이번 풍암동지점 이전을 통해 고객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질 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역민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고객중심과 지역밀착경영을 실천해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한전KDN 등 35개 기업 45개 부스 1000명 일자리 취업 상담·이력서 작성

'빅스포 2019' 현장 가보니

"제 고장에서 좋은 일자리 얻고 싶어서 빅스포를 찾았습니다."

6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 한국전력 '빅스포 2019' 현장에서는 지역 취업 준비생 1000여 명을 위한 '에너지밸리 일자리박람회'도 마련됐다.

개막일 당일에만 운영된 이번 박람회는 많은 참가자가 몰려 취업 상담, 적성 검사, 이력서 작성 등이 진행됐다.

한전과 한전KDN 등 에너지 공기업과 '대호전기' '인셀' '더존에너지' 등 35개 기업이 45개 부스를 차려 우수 인재를 맞았다.

이번 오전 찾은 박람회장은 이른 시간임에도 홍보부스를 꼼꼼히 둘러보고 채용 상담을 받는 취업 준비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교복 차림의 고등학생 지원자도 눈에 띄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공한 전혜민(22·전남도립대 졸업)씨는 "전공 외에도 회계 부문 등 지원 범위를 넓혀 채용될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며 "평소에 채용 기회를 접하기 힘든 공기업과 우수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를 만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최근 '조달청 기술혁신 시제품' 대상사에 선정된 광주기업 ㈜티디엘 양수양 부장은 "지원 범위를 좁혔기 때문인지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가 오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지역에서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고 말했다.

6일 하루 진행된 일자리 박람회 외에도 빅스포가 열리는 8일까지는 1층 행사장에서 '일자리충출출보관'이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빛가람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육성한 50개 창업기업을 만나고 전력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9년 11월호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열광에서 동반으로' 팬덤은 진화한다

— '덕질 영향력'이 문화판 바꾼다
— 사회에 선한 영향력 미치며 함께 성장

2019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WHITE MAGIC CITY : 치유도시

문화도시, 도서관이 미래다-윗다문화에 열린 시스템
멜버른 빅토리아주립도서관

아시아문화 원류를 찾아서-네팔
파슈파티나트 사원 앞을 흐르는 바그마티 강

워라밸시대, 문화관광이 툰다
미술, 건축, 음악의 도시 독일 슈투트가르트

에향 초대석

등단 50년, 깊어진 '꽃시인' 나태주
"시인은 세상에 위로 건네는 사람"

인물 화제
독립운동가 부부의 삶과 발자취
최원순·현덕신

기획·올 가을, 그 섬에 가고 싶다
지붕없는 미술관, 연흥도를 가다

클릭, 문화현장①-여수 예술마루
100년 예술산책
'한국근현대미술결작전'

강제운 시인의 남도의 섬과 토속음식
바다의 숨결 스민 해산물 밥상
여수 손죽도 '따개비무침'

에향이 만난 이 사람
'SCENE1980' 장간한 김지연, 한재섭
데뷔 55년, 나이 잊은 '영원한 오빠' 남진
KIA 타이거즈 첫 외국인 감독 맷 윌리엄스

문화 읽기
공공예술 '아트 펀드레이징' 걸음마

유현준의 도시건축④
아파트 재탕 사회, 공간의 혁신이 필요하다

전시리뷰
광주시립미술관 특별전
<북경서신>전

사육사육 나도 안아줘-신안
천사섬 매력 탐험
신안 섬여행
- 천사대교 달리자
- 으뜸 천일염과 홍어